〈技術資料〉

# 韓國庭苑의 아름다움과 精神世界(四次元의 神秘景)

Beauty of the Korean Garden as ploeived by fiue Senses and its Spiritual Symbolism

閔 庚 玹*
Min, Kyng Hyun

## Ⅰ. 緖 言

### 1. 庭苑의 槪念

나라마다 立地風土와 生活風俗이 다르듯이 정원의 개념은 물론 그 꾸밈새가 서로 상이하다. 정원이란 낱말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庭苑, 중국은 庭院, 또는 園林 일본에서는 庭園이란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기 그 나라의 특징이 담겨져 있다. 한국의 경우 "庭"이라 함은 건물이나 울타리로 "에워싸인" 뜰의 개념이며 "苑"은 주거공간에서 벗어난 넓은 들과 산림을 뜻하는 것으로 공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옛 정원의 총칭인 庭苑은 日本의 庭園과 中國의 庭院과는 달리 뜰(Garden)과 들(Park)의 복합용어라고 할 수 있다.

### 2. 庭苑의 原景

한국은 국토의 65%가 산이며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四季節의 변화를 가진 수려한 庭苑을 이루고 있다. 한 민족의 祖山인 북쪽의 白頭山에서 남쪽의 漢拏山에 이르기까지 자연경관이 뛰어난 명산이 많다. 특히 金剛山과 雪嶽山은 岩景이 뛰어나고 수 많은 形象石이 눈에 띄며 인간이 쌓은 듯한 石城도 있다. 한편 강이나 바다에는 石島가 떠있고 갖가지 형태의 護岸石과 瀑布 등이 있다. 이렇듯 한국의 자연은 그 자체가 風景式庭苑의 꾸밈새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自然의 岩景과 水景과 植生등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정원에 끌어들여 庭苑의 原景으로 삼았다. 自然風景式 정원양식을 이어온 韓國과 中國, 日本 庭苑의 특징을 요약하여 보면 韓國은 주위의 산수경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대한의 인공을 배제함으로서 자연인지 인공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中庸的인 技法을 써왔으나 中國은 자연실경보다 웅대하게 꾸며 인공성이 강조된 반면 일본정원은 縮景化되어 盤景이나 箱庭에서와 같은 강한 人工美를 풍긴다.

## Ⅱ. 背景(韓國庭苑의 精神世界)

숲과 들과 물의 文化인 한민족의 고대 정원문화와 관련된 사상적 배경을 옛 문헌과 유적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自然崇拜思想, 陰陽思想, 三才思想, 風水思想, 神仙思想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 이후에는 儒敎, 佛敎, 道敎 등이 도입되면서 정원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 1. 自然崇拜思想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던 주된 대상물은 태양으로 문헌에 나타난 白岳, 阿斯達, 東明 등의 호칭은 태양숭배와 관련이 있다. 이같은 태양숭

* 國土開發(造景技術士), 暻園大學校理工大學造景學科敎授

배는 곧 하늘을 받드는 것으로 하늘과 가까운 높은 산꼭대기에 돌로 祭壇을 꾸며 우리 고유의 제천의식을 형성해 왔었다. 그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 숭배의 모습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든다면 신라의 국호가 '鷄林'이고, 그 시조가 '朴'으로 숲과 나무를 신성시하였으며, 금관의 出字형 장식에도 나무의 기하학적 도형이 응용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자연숭배사상은 천혜적으로 아름다운 산수경관으로 둘러싸인 풍토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으로 자연과 사람이 일체가 되어 질서정연하게 살아왔으며, 이러한 사상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순수한 자연풍경식 정원양식을 낳게 하였다.

## 2. 陰陽思想

고대의 족장사회(Chiefdoms Society) 때 등장한 占術家에 의해 천계를 관찰하게 되면서 자연계의 상대적 대비와 조화의 기본구성원리인 음과 양의 사상이 싹트게 되었다.

음양사상의 본질에는 대립과 화합의 논리가 공존한다. 대립관계는 '+와 −', '男과 女'에서와 같은 상관관계이고, 화합은 서로 의존하는 공존관계로서 발전·확산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정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음양사상은 天·地·人의 三才思想과 數理思想에 영향을 주었고, 고대의 제단석 [陰性型]과 선돌 [陽性型], 그리고 고인돌과 같은 陰陽和合型의 樹石文化를 낳게 되었으며, 정원의 모든 꾸밈새에서는 主從, 高低, 明暗, 強柔, 圓方, 分聚, 自力과 他力과 같은 기본원리로 활용되었다.

## 3. 三才思想

삼재사상은 단군시대 초기에 고대의 음양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된 것으로 우주의 근원인 陰·陽·中庸을 뜻하며, 흔히 天·地·人, 또는 主·從·添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삼재사상은 뜰을 꾸밀 때 구성상의 기본형인 方·角·圓을 일정한 비례에 맞추어 활용케 하였으며, 못에서는 三神島를 조성함으로써 水面을 가름하여 넓게 보이게 하거나, 삼신산을 쌓는 土木技法을 발전시켰으며, 그 밖에도 樹石, 配植, 꽃꽂이에 있어서도 主·從·添의 원리로 활용되어 기본골격을 이루게 하였다.

## 5. 風水思想

'風水'란 생물이 살고 있는 땅과 인간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밝힌 것으로 산과 물, 빛과 바람에 의한 기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생활의 길, 흉을 예측하고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는 환경과학이다. 우리나라는 천혜적으로 산과 강이 많고, 풍토환경이 아름다워 일찌기 자연숭배사상이 싹트게 되었으며 이것이 酋邦社會 이후 등장된 점술가에 의해 자연의 섭리를 터득한 음양과 풍수사상이 발생되었다. 그 중 풍수사상은 천단과 같은 성역을 위시하여 궁성, 관가, 향교, 사찰, 민가의 집터는 물론 음택인 묘지를 선정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는데 이는 산수가 수려한 지형지세에서 기인된 인한 것으로, 삼국시대 말기 도선(827−898년)의 풍수비보설이 나온 후 집터의 풍수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뜰안에 동산과 못을 조성하는 예가 많아졌으며, 지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석탑들을 세운 運舟寺의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은 풍수지리설은 고려시대 이후에는 민가에서도 성행되었는데 개성과 서울의 도시입지는 물론 시골 촌락의 집들도 풍수설에 의해 선정되고 한국 독자적인 지형지세에 어울리는 건물의 배치와 정원의 꾸밈새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 6. 神仙思想

神敎, 仙敎, 卒敎 등으로 불리워 온 신선사상은 한민족의 자연숭배사상과 제천의식이 바탕이 된 무속신앙의 일종으로 기원전 5백여년 전

인 濊, 貊, 沃沮 등 삼한시대에 보편화된 한민족의 시원 사상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옛 문헌을 통하여 살펴본 한민족의 神仙敎는 4천3백연녀 전 고조선 초기에 발생된 한민족의 神敎인데 기원전 5백여년경 삼한시대에 仙道가 널리 보급되었으나 동이가 쇄퇴한 후 중국으로 전파되어 기원전 2세기 後漢때 道敎의 교단이 생기게 되고, 後漢時代(A.D 25-220년)에는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유교와 불교, 기타 민간신앙 등을 가미한 道敎가 생겨나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神仙 思想은 풍류적인 자연풍의 정원양식을 낳게 하였으며, 曲水宴와 不老를 상징하는 十長生이 등장하고, 신라시대의 화랑도에 의해 寒松亭과 같은 茶庭文化를 발전시켰으며 민가의 대문 밖 門庭의 蓮池와 섬의 조형요소 등도 불로장수를 바라는 신선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위자연의 한국적 정원문화를 낳은 陰陽, 三才, 風水, 神仙思想 이외에 삼국시대 이후 도입된 외래사상으로는 불교와 유교 사상을 들 수 있다. 특히 불사가 활발하게 전개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1천여 개소의 절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 정원문화에 끼친 영향이 컸는데 그 중 한국적인 자연풍의 선원과 정토사원이 생겨나고, 석등, 석탑, 석비, 석불 등 아름다운 석조 미술품을 남겼다.

## Ⅲ. 들과 뜰의 發生

### 1. 들의 發生(神苑의 造營)

지금으로부터 7-8천여년 전 부족사회(ribes society)에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부족공동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공원의 성격을 띤 神苑이 생겨났다. 하늘과 인간의 媒介空間(intermadiate space)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돌로 祭壇을 꾸미고 주변을 성역화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 2. 뜰의 發生(圃와 前栽)

부족사회에서 족장사회로 발전하면서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 富가 축적되고 占術家가 등장하였으며, 마을을 에워싸는 성곽을 쌓고 성곽외각에는 물을 이용한 垓字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遼寧省의 東八家 유적에서 볼 수 있는데, 성안에 원형의 집터가 57개소나 발견되었으며 그 중앙에는 사방 40여m에 이르는 대형 건물터가 발굴되었다. 이같은 대형 건물은 占術家와 같은 支配者의 出現을 의미하며 집터에 넓은 공지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희귀한 藥用植物과 食用植物을 가꾸던 圃園의 일종으로 주거지에 꾸민 뜰의 시초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등장된 신전 앞뜰에는 키가 낮은 神木(Eurya, Japonica thunb)을 심은 前栽形式의 植壇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Ⅳ. 韓國의 庭苑美

정원의 아름다움이란 우주 공간내의 생태적인 질서속에서 나타나는 可變的인 것이므로 視覺爲主가 아닌 五感을 통해 마음속으로 감상하는 複合的인 아름다움을 말한다. 이는 자연소재와 인공재료가 땅을 모체로 하여 수시로 변하는 유기적인 아름다움이며, 여기에 무형적인 香과 소리, 맛, 질감 그리고 우주의 섭리와 같은 깊은 뜻이 담겨져야 한다.

### 1. 素朴한 韓國的인 自然美가 풍긴다.

숲과 돌사이로, 흐르고 떨어지고 고이는 물 등 자연경관과 亭子와 같은 築造物 그리고 건물과 정원사이에서 볼 수 있는 扁額, 盆景과 같은 接景物 등 人工景物이 자연계의 질서에 따라 陰陽의 원리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꾸며져 있어 자연인지 인공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박한 자연미가 풍긴다.

2. 주위와의 調和와 전체적인 均衡美가 아름답다.

한국정원은 조형적인 전체공간의 균형미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의 순환 등 생태적인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서구의 대칭적이고 靜的인 均衡美가 아니라 陰과 陽, 虛와 實, 自力과 他力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대칭속의 균형미이며 자연과 더불어 共生하는 相互 依存的인 均衡美가 특히 아름답다.

3. 縮意的인 象徵性이 뛰어나다.

韓國庭苑의 原形은 땅에 돌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정원의 기능은 古代社會에서 신을 받드는 自然崇拜思想에서 유래되었다. 정원의 원형인 神苑의 中心景物에 쓰인 돌은 그 형태가 천태만상이고 조각미가 뛰어나 한국정원의 主素材로서 쓰여 왔으며 先史時代에 巨石文化가 발생되었다.

4. 多樣한 借景技法이 쓰이고 生動感이 난다.

주변의 경관을 뜰안으로 끌어들이는 借景技法이 뛰어나며 나무 줄기나 문창石燈의 火窓 등 여러가지 틀이 활용되어 深景美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해가는 경관 속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5. 庭苑과 건물사이의 接景美가 다양하다.

庭苑과 건물사이의 매개적인 마루공간과 밖에서 바라다 보이는 지붕공간에도 다양한 接景이 연출된다.

## Ⅴ. 庭苑의 類型別事例

한국의 정원을 이해하기 위해 民家庭苑을 위시하여 寺苑, 宮苑, 陵苑 등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그 주된 경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民家庭苑

한국의 民家는 고유의 풍수사상에 의해 남쪽이 트이고 북쪽이 산으로 막히며 동서쪽이 알맞게 애워싸인 아늑한 곳을 골라 儒敎的인 秩序에 따라 男과 女, 上·下人의 생활공간과 祖上의 祠堂空間 등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民家庭苑은 定住空間에 딸린 邸宅庭苑과 담장밖의 別堂庭苑, 그리고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경승지에 꾸며진 別墅庭苑으로 나눌 수 있다. 邸宅庭苑의 경우에는 사랑채 앞 공간의 外苑과 안채 뒷뜰의 경사면에는 살내에서의 조망과 廻遊的인 감상을 위해 花階中心의 後苑이 꾸며지고 담장밖 別堂庭苑은 神仙思想의 영향으로 풍류적인 池塘庭苑이 주로 조성되었는데 이같은 民家庭苑의 대표적인 예로 江原道 江陵에 있는 船橋莊을 들 수 있다.

### 2. 寺　　苑

한국의 사원은 산수경관이 뛰어난 아름다운 경승지속에 탑을 중심경물로하여 남북축선상에 불전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정연미와 함께 엄숙한 분위기가 나며 입구에 꾸며놓은 影池에는 祖山과 건물 그리고 佛塔등이 투입되어 幽玄美가 풍긴다. 특히 三國時代 중기 이후에는 禪宗과 淨土宗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自然風의 禪苑과 淨土寺苑이 생겨났으며 고려시대 이후 사원안에 茶庭이 많이 보급되었다. 이들 중 繼祖庵의 淨土寺苑을 예로들면 그 꾸밈새가 중국이나 일본과 전혀 다르다. 繼祖庵 서쪽 언덕 위에 조성된 極樂幌은 돌을 主素材로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산인 樹石技法을 人體에 비유해보면 북쪽의 三尊石이 머리에 해당되고 中心石이 배꼽, 남쪽의 四十願石山이 허리, 언덕 아랫쪽의 三尊石과 三山石이 다리

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상호간의 위치와 거리를 보면 三尊石에 三山石까지의 전체길이가 106m이며 中心石까지가 65m로 이들의 거리상의 비례치가 黃金比를 이루고 있다.

江原道 雪嶽山의 極樂峴의 공간구성은 三尊石과 四十願石山이 꾸며진 象徵空間과 三山石과 三盤石이 들어선 座禪 및 眺望空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淨土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라기 보다 가변적인 개념에 속한다. 계조암에서 볼 때 일차적인 정토는 서쪽 언덕위에 꾸며진 極樂峴이라 말할 수 있으나 일관 極樂峴에 오르게 되면 서쪽 千佛洞 골짜기의 仙景과 達摩峰으로 확산되어 보인다. 이곳 사원의 중심지역인 계조암을 기준할 때 동굴속에 꾸며진 極樂殿은 佛의 淨土이고 서쪽 언덕의 極樂峴은 수도자가 밟을 수 있는 현실적인 地上의 淨土이다. 다시 이곳에서 조망되는 千佛洞과 達摩峰의 仙景은 지상에 나타난 실존적인 정토이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정토와의 媒介空間으로 환상적이고 유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極樂峴이 繼祖庵·內苑의 淨土라면 達摩峰과 千佛洞은 外苑의 淨土라고 할 수 있으며 繼祖庵 뒷산에서 동쪽으로 바라다보이는 永郎湖는 伽藍園의 影池에 해당된 것으로 日本의 代表的인 淨土寺苑인 京都의 平等院(11세기 조성)의 金堂앞 연못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신라의 원효대사가 653~655년 사이에 조성한 계조암의 정토사원은 자연의 섭리와 불교의 우주관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유일한 自然風景式 淨土寺苑이다.

### 3. 宮　　苑

우리나라에서의 宮苑의 시초는 동물을 사육하던 囿苑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러한 囿苑의 시초는 B.C 1950년 檀君 魯乙王代에 이미 많은 동물을 궁원안에서 사육하였다는 기록이 여러가지 문헌에 전해오고 있다.

옛 궁원의 유적이 발굴된 곳으로 서기 427년에 조성된 고구려의 安鶴宮域이 있으며 이곳에 넓은 못을 파고 언덕위에는 자연스러운 野山의 岩景을 實景化하였으며 건물로 에워싸인 中庭에는 石山型의 景石을 심었다　당시 百濟에서는 盤景이 개발되어 6세기 日本으로 건너가 箱庭이 보급되어 오늘날의 縮景的인 日本庭苑을 낳게 되었다. 또한 신라에서는 바위에 산수경관을 음각한 磐景이 개발되어 중국으로 건너가 12세기경 縮景盤이라 하여 貴族社會안에서 널리 유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밖에도 신라의 경우 이 궁터에 曲水宴을 하던 曲水渠가 남아 있으며 674년에 꾸민 경주 月池(一名 雁鴨池)는 동서 200m 남북 180m의 연못으로 亭 樓에서 바라다 보인 동쪽 호안선의 길이가 약 1.3km로 돌출된 半島의 자연스러운 線形美가 뛰어나고, 크고 작은 세곳의 섬과 1,089개의 庭苑石이 심어져 동해안의 남성적인 절경을 보는듯 하다. 특히 동쪽의 호안부는 20~25cm의 다음돌을 2.1m 높이로 쌓아올린 곡선형으로 20여곳에 峽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깊은 곳이 90여m나 되며 深景美가 뛰어난다. 樓 亭과 같은 궁원건축물이 들어선 서쪽의 호아선은 동쪽보다 3.3m가 높은 5.4m의 직선형으로 꾸며 조망의 효과를 높였으며 서쪽 언덕가에 5개의 樓亭을 세웠다.

月池 주변에 심은 정원석의 樹石方法을 살펴보면 單植, 合植, 群植, 散植, 疊植, 乘植 등 6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單植은 물속에 石島가 떠보이는 庭湖石의 경우이고 散植은 완경사지에서 볼 수 있는데 마치 소때가 들에서 풀을 뜯는 형상이다. 疊植는 급경사지의 기암절벽을 옮겨놓은 것과 같고, 乘植은 물개가 못안으로 뛰어드는 듯한 형상이다. 月池의 입수시설에 연결된 두단의 폭포는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조성된 폭포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원유적이며 月池의 성격은 한국고유의 神仙風의 궁원으로 한민족의 巨石文化를 물과 함께 뜰에 樹石文化로 발전시킨 중요한 사적지이다.

### 4. 陵　　苑

인간들이 죽은 후에 안장되는 무덤의 꾸밈새는 先史時代의 고인돌에서 積石塚封土墳 등 다

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중 庭苑文化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大伽倻國 초기(1~2세기경)의 고분을 대상으로 陵苑의 꾸밈새를 살펴보기로 한다.

慶尙北道 高靈邑 池上洞에는 100여개의 古墳이 산재되어 있어 사적 79호로 지정되어 있다. 필자가 1980년 발견한 48호 고분의 수석군은 해발 283m인 산위에 있었다. 이곳 48호 고분의 규모는 매우 커 직경 26m 높이 6.1m이며 동쪽사면에 33개의 龍象石과 서북쪽에 15개의 龜形石이 심어져 있다. 그 중 동쪽 封土面의 중간 사면에 심어진 세마리의 龍象石은 대가야의 왕, 왕후, 세자를 상징한 것으로 작은 돌이 길이 1.19m 폭 0.28m로 왕세자에 해당되고 그 동쪽에 있는 두마리의 龍象石의 크기는 길이 1.45m, 포 0.63m이며 이들 돌의 상하부의 경사각이 21°로 동해바다에서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는 듯한 生動感을 풍긴다. 이밖에 主景石에서 동북쪽으로 4.5m 떨어진 封土墳 외각의 평지에 5개의 龍頭象石이 직선상으로 애워싸고 있는데 이들은 大伽倻國의 주변국가인 5가야를 상징한 것으로 종주국인 대가야국을 호위하는 형극으로 樹石되어 從景石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밖에 25개의 龍象石은 봉분 외각의 평지의 지표면에 용머리가 노출된 형상으로 동북간에 1:2:3의 무리를 지은듯 수석되어 있다.

고분의 서북쪽 경사면에는 완전한 형태의 龜形石 1개를 중심으로하여 서북쪽 사면에 11개, 서남쪽 사면에 3개 등 거북머리나 등의 일부가 지표에 노출된 것처럼 생긴 돌이 심어져 있다.

서북쪽의 主景石인 완전한 형태의 龜形石은 길이 1.63m 폭 1.45m의 몸통돌위에 길이 96cm, 폭 1.09m 크기의 거북등 모양의 上石이 겹쳐있으며 下石에 길이 67cm 폭 63cm의 머리돌이 돌출되어 전체의 형태가 목을 내민 거북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거북의 머리에서 몸통에 이르는 평균 傾斜角이 17°로 서북쪽 멀리에 있는 가야국의 개국성산이 가야산을 향한 昇天的인 기세가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고분의 동쪽에 심은 33개의 龍象石은 하늘나라의 33神과 탄생, 번영을 상징하고 서북쪽의 거북은 죽음과 往生을 뜻하는 것이며 서북쪽의 龜形石이 1:3:5의 樹石單位를 이룬데 반하여 동쪽의 龍象石은 3:5의 수석단위를 이루고 主從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밖에 古墳 封土面에 심어놓은 모든 돌의 기세를 보아 가야국의 개국성산인 북쪽의 가야산에 방향성이 맞추어져 있으며 生과 死, 陰과 陽, 主와 從 등 우주의 섭리와 가야시대에 숭상하던 동물을 영구불멸의 돌을 매체로하여 상징적이고 縮意的인 기법으로 주술적인 小宇宙를 창작화한 세계 최고의 樹石作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고경 池上洞 고분수석의 조성년대는 1~2세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본 정원의 대표적인 類型인 唐山水(枯山水)式庭園의 始源이라는 점에서 庭苑史上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Ⅵ. 結　　言

韓國 庭苑의 原形은 돌을 素材로 한 公共的인 신앙의 도장인 神苑이며 5,300여년 전 주거공간에 圃 園이 등장되고 神苑안에 세운 神殿앞뜰에 前栽(植壇)가 개발되었으며 3,900여년 전 檀君時代의 魯乙王代에 넓은 囿苑이 생기면서 공공적인 들과 사생활공간인 뜰의 複合文化가 싹트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古代 神苑은 신앙적인 巨石文化에서 시작되었으며, 선돌(立石)에서와 같이 땅에 돌을 세운 樹石文化로 발전되었는데 초기에는 거북과 용 등 영험스러운 동물을 具象化하거나 象徵化하는 과정을 거쳐 5세기 초에는 주변의 자연암경을 實景化하면서 숲과 돌과 물의 복합적인 庭苑文化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한국정원의 배경을 이룬 內面世界를 살펴보면 천혜적으로 수려한 산수경관을 배경으로 싹튼 自然崇拜思想에서 陰陽 및 三才思想과 風水 및 神仙思想 등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 신선사상은 그 맥락이 조선시대에까

지 이어져 풍류적인 池塘文化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주의 섭리를 바탕으로 꾸민 한국정원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정원의 형식을 無爲自然的인 中庸의 自然風景式으로 중국의 권위적인 巨大美와 일본의 縮景美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둘째, 한국정원의 類型은 크게 나누어 樹石庭苑, 林原庭苑, 花階 등 셋으로 分類할 수 있다.

셋째 宅地과정에서 風水思想을 활용하여 빛과 물과 바람 등 환경과학을 중요시하였으며, 건물 내부에서의 偕景과 眺望性을 최대한 活用하고 있다.

넷째 地割에 있어서 초기에는 우주의 섭리에 따른 神의 尺度에 의해 神苑이 꾸며졌으나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뜰의 문화가 시작되면서 人間을 기준한 生物尺度에 의해 黃金比例가 주로 쓰였다.

다섯째 技法面에 있어서 陰과 陽, 主와 從, 分과 聚, 自力과 他力 등 자연계의 생태적 원리에 맞추어 주위와의 調和는 물론 전체적인 均衡美를 살렸다. 또한 대칭속의 비대칭, 虛와 實의 結合, 靜中動의 幽玄美 등을 살려 四次元의 靈性의 場을 조성하였다.

여섯째, 한국의 정원은 건물의 위치 기능에 따라 정원의 꾸밈새가 다양하다 울타리가 없는 정원이 있는가 하면, 건물로 애워싸여 아무런 시설이 없고 밤이면 하늘의 별과 달빛이 뜰안에 가득찬 白庭도 있고 $1m^2$도 안되는 山水景觀의 縮景型도 있다. 특히 외국에서 도입된 불교사원의 경우 繼祖庵 淨土寺苑처럼 한국형의 자연풍경식으로 꾸민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꾸민 1,300여 개소의 別墅庭苑만 하더라도 하나같이 같은 꾸밈새의 정원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한국적인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